

부모의 지각에 의한 유아 영재의 발달 특성의 변화

윤 여 홍 (CBS 영재교육학술원 소장, 아주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yeuhong@chollian.net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가 지각한 유아 영재의 영재적 특성과 연령에 따른 발달상 변화를 알아보고자 만 3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148명 유아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30개월부터 47개월까지,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 및 6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를 유아 1, 2, 3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에 의해 유아영재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영재적 특성이 있으며, 주요 특성들로는 '우수한 기억력', '호기심이 많다', '2살에 숫자를 읽고 이해한다',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 동기가 강하다', '주의집중이 강하고 길다', '책읽기를 선호한다', '수준높은 언어를 사용한다', '기발한 생각을 한다', '어렵거나 왜라는 질문이 많다', '자신에게 만족하며 독립적이다' 등으로서 거의 인지적 특성들이었다.

둘째, 어린 유아에서부터 학령전기 유아까지 영재적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영재적 특성의 강도가 증가하고 뚜렷해지는 경향성을 띄었다.

셋째, 어린 유아에서 나타나는 영재적 특성과 학령전기 유아단계에서 나타나는 영재적 특성간에는 일부 항목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일부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지만, 일부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주관적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영재 판별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원으로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아영재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며, 이런 정보를 사용할 때는 유아의 세부적인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유아영재, 영재적 특성, 유아영재판별, 부모의 지각, 발달적 특성

I. 서 론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은 우수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아동들에게 이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9년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2002년도에는 정부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과 함께 영재육성책을 발표한 이후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현재, 영재교육 활성화 덕분에 15개의 대학에서 과학영재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곧 과학영재학교가 시작될 시점에 있다.

그러나, 영재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특성이 발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법적으로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도 유아영재 및 유아영재교육에 관하여는 아직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연구들도 중,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의 영재 학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 유아영재에 대한 관심이 한 층 증가하였고, 연구에 있어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아직은 유아단계의 영재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며 또한 조심스러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한 인간의 전 생애적 발달(life span) 단계에서 볼 때 가장 초기의 기초 단계에 놓여 있다. 유아교육학자들은 0세부터 8, 9세까지를 유아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박혜원(2001)은 협의로는 2-6세의 아동을, 광의로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총칭한다고 하였다. 유아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4-6세 유치원 교육을 의미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교육의 의미로 확대된 편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유아를 출생에서부터 약 6, 7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의미하며, 유아영재의 의미도 학령전기에 해당되는 영재아동(preschooler)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유아영재교육은 영재성을 지닌 아동들에게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영재교육이라는 전문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조기 교육이나 초기 개입(intervention)이 어린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 동의한다. 즉, 아동의 나이가 어릴 수록 아동이 속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영재성의 발현과 계발에 영향을 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아의 영재성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영재판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아의 영재성 판별의 어려움은 유아영재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유아의 영재성 판별이 어려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아영재성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여 영재성 판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영재의 개념이나 정의가 어렵기도 하지만, 영재가 어린 시절에 어떠한 특정한 특징들이 보이고 있는 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떤 특성의 영재성이 나

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재성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둘째, 유아의 영재성 판별 및 평가 방법이나 도구의 문제,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유아영재를 판별해내는 작업을 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아직은 유아영재교육분야가 전반적인 영재교육분야에서 가장 미개척분야임을 감안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셋째, 학부모의 유아영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 일부 부모들은 무조건 교육을 받으면 영재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수 계산과 같은 특정 학습성취만을 영재성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과잉학습과 아동의 지적 수준과 맞지 않는 비효과적인 학습을 유발하게 하여 행동장애나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유아영재 교육방법 상에 혼란을 유발하게 하고, 영재교육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유아 영재의 판별 및 영재교육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하여 정작 영재적 특성을 지닌 아동은 방치되거나 전혀 영재교육이 필요치 않은 아동에게는 일찍부터 학습에 대한 압박감을 제공하는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영재 판별을 위해 유아 단계에서 나타나는 영재성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구체적으로 아동 발달과정상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를 부모가 지각한 영재성의 관찰보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유아영재를 나타낼 수 있는 영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본다
둘째, 영재적 특성이 발달연령에 따라 부모가 지각한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아동에게서 나타난 영재적 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유아단계에서 아주 어린 유아와 학령전기 유아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영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있어서는 재능의 영역과 발달 단계 및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영재의 재능 영역에 따라 또한 나이에 따라 영재성의 표현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유아의 영재판별도 나름대로의 방법과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영재의 판별과정과 선발방법에 관하여 논의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유아의 영재판별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재판별과정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만큼 많은 연구가 되어오지 못했다.

유아는 특성상 급격한 발달 과정에 있으면서 주변 환경이나 인물, 자극에 많은 영향을 받아 변화의 곡선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재성을 확인하고 변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린 유아에게서도 영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영재판별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관찰, 부모나 교사의 지명도, 면담, 평정척도를 이용한 행동 및 영재특성 정도의 측정,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한 진단 평가, 수행평가 및 결과물에 대한 직접 평가, 교육프로그램의 적응도와 발전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영재 판별을 대표할 수 없다. 직접 관찰이나 면담 방법의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와 관찰자와 면담자의 전문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부모나 교사의 지명도에는 부모가 영재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른 편파성과 주관적 평가의 시비, 및 학교에서의 모범적 특성과의 변별성 문제가 있다. 역시, 부모의 보고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여 판별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검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검사자의 전문성의 문제와 함께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지능검사의 경우는 어린 유아를 검사할 경우 점수의 불안정성과 가변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박혜원, 2001; Torrance & Caropreso, 1999), 유아 대상의 검사가 부족하고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일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얻게 되면, 어떤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그렇다', '오늘 아이의 컨디션이 나쁘다', '집에서는 다 잘 한다', '검사가 믿을 만 하지 못하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관찰, 면담이든 검사를 사용하든지, 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유아 영재 판별 절차를 대표할 수 없으며, 지능검사라든가 창의성 검사라든가 어느 한가지의 검사만으로도 유아 영재 판별의 대표적인 검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은 유아영재판별의 가능성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박혜원, 윤여홍, 1999; 박혜원, 2001; 장영숙, 2001; 조용태, 2001; Lewis & Louis, 1991; Lewis & Michalson, 1985; Perleth, Schatz & Monks, 2000; Piirto, 1994; Robinson, 1987; Rogers, 1986).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지능 검사나 창의성 검사와 같은 검사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행동 특성이나 학습 특성 정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관찰이 유아영재 판별에 중요하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보고하고 있다(조석희 & 한순미, 1986; Haensly & Lee, 2001; Lewis & Louis, 1991; Lewis & Michalson, 1985; Piirto, 1994; Robinson, 1987; Rogers, 1986).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아영재가 일반아동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으며, 이것이 유아영재 판별의 근거가 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Rogers(1986)는 영재부모에게 초기 36개월 동안 아동의 발달에서 보여준 특성을 질문했을 때에 뛰어난 어휘력과

기억력, 주의집중 각성(alertness)과 주의집중 지속성, 및 창의성이 거의 2, 3세정도 일찍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들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에 강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으며 퍼즐이나 컴퓨터를 좋아하고, 숫자나 글자를 일찍부터 깨우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Lewis & Louis(1991)도 영재유아의 특징으로 언어표현력, 기억력, 추상적 사고, 호기심과 운동능력 등을 들고 있다. Piirto(1994)는 언어사용, 수리적 능력, 음악, 미술, 신체 운동능력, 시공간능력, 사회인지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 빠른 발달을 보이며, 기억력이 우수하고, 또래보다 오래 집중하며, 발달의 세 측면간에 불균형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조속하여 또래를 리드하거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조석희, 한순미(1986) 등이 전국에서 발굴한 144명의 3-5세 유아 영재이 언어발달, 글자 읽기와 책읽기, 숫자 알아보기와 셈하기 등에서 일반적인 발달시기보다 훨씬 앞섰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관찰보고에 대하여 비판을 받는 것의 한 가지는 결과가 부모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영재 판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관찰 보고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윤여홍(1998)의 영재특성 조사 연구에 의해서도 영재와 평재 뿐만 아니라 영재아와 우수아 사이에서도 부모가 지각한 학습습관, 동기 유발, 창의성, 의사전달, 및 공간 추상력 등에서 뚜렷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보고한 정보는 비록 부모의 지각에 따른 정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영재판별에서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임을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관찰 보고에 따른 정보를 사용할 때에 부모가 지각한 보고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여홍(199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영재특성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Lewis & Louis(1991)의 연구에서 Lewis & Michalson(1985), White(1985), Fagan & McGrath(1981), Guiford, Scheuerle, & Schonburn(1981), 및 Lewis & Brooks-Gunn(1981)의 연구들을 정리한 것을 보면 infant(영아)와 preschooler(학령전기)에서의 영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들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ewis & Michalson(1985)의 연구에 의하면, infant(영아)단계에서는 주의력, 기억력, 호기심, 학습에 대한 즐거움, 동기 등이 나타나며, preschooler(학령전기)에는 기억력, 앞선 언어발달, 질문이 많음, 그리고 정의적 특성에서의 자아개념, 정서사회적 발달, 동기, 인내심, 과제집착력, 사회적 인식, 나이 많은 사람과의 교류 등이 영재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영아기에는 발달상 주의집중이나 호기심,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대신에 앞선 언어발달, 나이 많은 사람과의 교류, 질문이 많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령전기에서는 영아기 때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이 보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에 의한 유아기 때의 영재성 파악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같이 고려해야만 정보가 좀더 정확해지고 신뢰로와 질 것이다. Lewis & Louis(1991)은 이러한 점을 영재적 특성 발달에 관한 과정 중심의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영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재적 특성 요인 중에서 연령별로 어떤 특성들이 가장 잘 나타나고 또한 가장 안정적으로 영재성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발달 과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영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특성이 구체적으로 아동 발달과정상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 지를 부모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만 3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의 148명 유아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유아 영재를 크게 3 단계를 구분하면, 30개월부터 47개월까지를 유아 1단계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유아 2단계로, 60개월 이후부터 현재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까지를 유아 3단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체 연구대상은 유아 1집단, 유아 2집단 및 유아 3집단의 3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유아 1집단의 피험자 수는 39명이며, 유아 2집단은 57명, 유아 3집단은 5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교육 시스템과 연관되어 연령을 나누었으며, 대략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세분화하였다.

전체 148명 피험자의 평균 교육 기간은 11.5개월이며, 유아 1집단의 교육기간은 5.1개월, 유아 2, 3집단의 교육기간은 13.8개월이었다. 남, 녀의 비율은 남자 아동이 74명, 여자 아동이 68명, 무응답 6명 정도로서, 남, 녀의 인원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참조).

<표 1> 피험자 인원수, 성별 및 교육기간

집 단	인원수(명)	남	녀	무응답	평균 교육기간
유아 1집단 (30개월 ~ 48개월)	39	15	22	2	5.1개월
유아 2집단 (48개월 ~ 60개월)	57	59	46	4	13.5개월
유아 3집단 (60개월 ~ 취학 전)	52				
총 합 계	148명	74명	68명	6명	11.5개월

이들의 영재 판별은 전문 검사자에 의하여 K-ABC, CDS-I, K-WPPSI, 사고력, 수학, 과학, 언어, 사회영역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및 비언어성 창의성검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검사 결과 전국 규준에서 상위 3% 이내에 드는 아동을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집착력이 우수한 지적 영재아동(intellectually gifted, academic gifted)으로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이미 영재판별을 받고 입학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영, 유아단계의 아동들 부모 중에서 설문에 답한 총 148명이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측정 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인적사항과 20개 항목의 영재특성을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이루어졌다. 부모가 읽고 답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시된 영재 특성 해당항목은 총 20개로서, 조석희 & 한순미(1986), Lewis & Louis(1991), Lewis & Michalson(1985), Piirto(1994), Robinson(1987), Rogers(1986) 등의 연구에서 유아영재가 일반아동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들로 나열한 항목들을 뽑아서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답한 148명의 유아영재의 학부모 응답을 분석하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유아1, 유아2, 및 유아3 집단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각 집단이 어느 정도 영재성이 있음을 보고하는 지를 집단간 빈도 및 %, 순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 영재의 영재적 특성

148명의 유아 영재에게서 일찍부터 나타난 영재적 특성을 부모의 보고를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48명으로부터 얻은 5점 척도 결과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과 '다소 그렇다'의 4점을 합한 인원수와 %를 계산하였다. 설문지 결과 '다소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모가 각 문항 특성을 자녀로부터 거의 지각하지 못한 것이며, '보통이다'의 경우도 부모의 주관적 평가로서 자녀로부터 그 문항 특성을 지각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므로,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의 긍정적 평가에 체크한 것만 합산하였다. 설문지에서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에 체크한 인원수와 %가 가장 많은 특성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지각한 영재 유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우수한 기억력'을 들었으며, 148명중에서 136명이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여 총 92.9%를 차지하였다. 우수한 기억력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표시한 사람만 하더라도 86명이 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58.1%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였다. 그 다음으로는 '왕성한 호기심'으로 126명 85.1%을 들었으며, '글자나 숫자를 안 시기가 빠르다'와 '학습동기가 강하다'에서는 124명 83.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의집중이 강하다'의 122명 82.4%와 '책읽기를 선호한다'와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한다'로 121명 81.8%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유아영재에게서 70%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들은 <표 2>에서 살펴본 결과 상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의 범주로 나누어본 결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인지적 특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영재 유아의 경우도 일찍부터 일반적으로 영재적 특성이라고 하는 인지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증거가 되며, 지적으로 빠른 발달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 순위별로 살펴본 유아영재의 발달 특성

순 위	특 성 들	다소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인원수(명)	%	
1	인	기억력이 우수하다	136	91.9
2	정	호기심이 많다	126	85.1
3	인	2살에 숫자를 읽고 이해한다	124	83.8
4	정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동기가 강하다	124	83.8
5	인	주의집중이 강하고 길다	122	82.4
6	인	책읽기를 선호한다	121	81.8
7	인	수준높은 언어를 사용한다	121	81.8
8	인	기발한 생각을 한다	113	76.4
9	인	어렵거나 왜라는 질문이 많다	113	76.4
10	정	자신에게 만족하며 독립적이다	112	75.7
11	정	하나의 과제에 끝까지 매달린다	98	66.2
12	정	유머스런 말을 자주한다	97	65.5
13	정	자기 주장이 강하다	90	60.8
14	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87	58.8
15	인	책을 보며 한글을 혼자 깨우쳤다	85	57.4
16	사	자기 놀이에 열중한다	82	55.4
17		신체발달이 빠르다	71	48.0
18	정	반복적인 일에 괴로워 한다	69	46.6
19	인	구구단 외우기가 빠르다	40	27.0
20	정	쉽게 지루해한다	31	20.9

인: 인지적 특성, 정: 정의적 특성, 사: 사회적 특성

2. 연령별로 살펴본 영재적 특성

부모가 지각한 유아영재의 특성을 발달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발달 연령별 3집단으로 나누어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항목별로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체크한 빈도와 %, 그리고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령별로 살펴본 유아영재의 발달특성과 순위

전체 순위	특 성 들	유아1 (N1=39)			유아 2 (N2=57)			유아 3(N3=52)		
		순위	빈도(명)	%	순위	빈도(명)	%	순위	빈도(명)	%
1	기억력이 우수하다	1	37	94.9	1	52	91.2	1	47	90.4
2	호기심이 많다	3	32	82.1	3	49	86.0	3	45	86.6
3	2살에 숫자를 읽고 이해한다	6	30	76.9	5	48	84.2	2	46	88.4
4	학습의 즐거움과 동기가 강함	3	32	82.1	2	50	87.7	7	42	80.8
5	주의집중이 강하고 길다	5	31	79.5	7	47	82.5	4	44	84.6
6	책읽기를 선호한다	9	29	74.4	5	48	84.2	4	44	84.6
7	수준높은 언어를 사용한다	6	30	76.9	7	47	82.5	4	44	84.6
8	기발한 생각을 한다	10	28	71.8	3	49	86.0	9	36	69.2
9	어렵거나 왜라는 질문이 많음	11	26	66.7	9	45	78.9	7	42	80.8
10	자신에게 만족하며 독립적임	2	33	84.6	10	44	77.2	10	35	67.3
11	과제에 끝까지 매달린다	14	24	61.5	12	39	68.4	10	35	67.3
12	유머스런 말을 자주한다	11	26	66.7	11	41	71.9	13	30	57.7
13	자기 주장이 강하다	6	30	76.9	15	34	59.6	15	26	50.0
14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경향성	13	25	64.1	13	38	66.7	16	24	46.2
15	책보며 한글 혼자 깨우침	15	21	53.8	14	35	61.4	14	29	55.7
16	자기 놀이에 열중한다	16	18	46.2	16	32	56.1	12	32	61.5
17	신체발달이 빠르다	16	18	46.2	16	32	56.1	18	21	40.4
18	반복적인 일에 괴로워한다	16	18	46.2	18	29	50.9	17	22	42.3
19	구구단 외우기가 빠르다	20	5	12.8	19	15	26.3	19	20	38.5
20	쉽게 지루해한다	19	11	28.2	20	10	17.5	20	10	19.2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39명의 유아1집단, 57명의 유아 2집단, 52명의 유아 3집단 모두에서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재적 특성은 '기억력이 우수하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다. 그러나, 아동의 나이가 가장 어린 집단인 4세 미만의 유아1집단에서는 '자신에게 만족하며 독립적이다'라는 특징과 '학습의 즐거움과 동기가 강하다', 및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장 나이가 많은 유아 3집단에서는 '숫자를 읽고 이해한다', '책 읽기를 선호한다', '주의집중이 강하고 길다' '어렵거나 왜라는 질문이 많다'등 구체적인 학습행동 및 탐구 활동과 관련한 항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신에게 만족하며 독립적이다', '학습이 즐겁고 동기가 강하다', 및 '자기 주장이 강하다'의 항목은 순위가 떨어져, 이러한 특성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징은 유아 3집단 아동들이 연령에 의해 유치원이나 여러 장소에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순위에서 다소 멀긴 하지만 '자기 놀이에 열중한다'의 항목은 유아 1집단이나 유아 2집단에 비해 유아 3집단에서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도 이 연령대가 가져야 하는 발달과업인 사회적 활동의 촉진과 주도성의 면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재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한편, 창의적 사고나 행동을 측정하는 '기발한 생각을 한다'의 항목은 유아 2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만 4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연령에서의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10위까지의 순위와 11~20위까지의 순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은 3 집단 중에서 유아 1집단에서 2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나 %에서의 증가가, 일부 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또한 일부 항목에서는 3집단 모두 어느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분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 3집단의 경우, %에서 8개의 항목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나머지 항목들은 67%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유아 1집단에서 유아 2집단, 그리고 유아 3집단으로 올라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지각에 따른 영재적 특성들은 그렇지 않은 특성에 비해 좀 더 뚜렷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아동이 좀 더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추론을 낳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단계의 영재아동들 전반에서 70%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0가지 항목은 영재적 특성으로 강하게 지각할 수 있으며, 약 10가지 정도에서는 영재적 특성의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부모가 지각한 유아 영재의 영재적 특성과 연령에 따른 발달상 변화를 살펴보고, 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유아영재를 나타낼 수 있는 영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본 결과, 유아영재를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는 영재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영재적 특성으로는 ‘우수한 기억력’, ‘호기심이 많다’, ‘2살에 숫자를 읽고 이해한다’,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 동기가 강하다’, ‘주의집중이 강하고 길다’, ‘책읽기를 선호한다’, ‘수준높은 언어를 사용한다’, ‘기발한 생각을 한다’, ‘어렵거나 왜라는 질문이 많다’, ‘자신에게 만족하며 독립적이다’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거의 인지적 특성들로 범주화되어 있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유아영재에게서 나타난 영재적 특성이 발달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린 유아에서부터 학령전기 유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지만,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는 다소 두드러지고 뚜렷해지는 경향성을 띤다. 즉,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아에게서 나타난 영재적 특성의 강도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어린 유아(유아 1집단)에서 나타나는 영재적 특성과 학령전기 유아단계(유아 3집단)에서 나타나는 영재적 특성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아 1집단과 학령전기 유아단계인 유아 3집단에서 나타난 영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일부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지만, 일부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록 부모가 지각한 정보이지만 분명하게 유아영재에게서 존재하는 영재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재성의 정도에서도 발달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영재적 특성도 영재판별에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유아영재 판별과정에서 아동에게 나타난 특성을 사용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재적 특성의 정도를 고려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집단을 크게 3집단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영재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부모의 지각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에 의한 판단자료가 아닌 부모의 판단 자료라는 제한을 갖고 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아동으로부터 특성을 찾는 일이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3 집단을 연령에 따라 횡단으로 나눈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발달적 특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정적이다. 영재적 특성의 발달상 변화를 좀 더 정확하

게 보기 위해서는 횡단연구가 아닌 종단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 번 연구 대상아동을 추후 연구해봄도 바람직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학령전기 유아영재에게서 나타난 특성은 영재교육이 주는 영향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유아영재판별에서 확인된 영재적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발달의 가소성이 현저히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동이 영재교육에 참여 하므로써 영재교육이 주는 영향이 가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좀 더 추후 연구에 의해 밝혀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아영재의 판별에서 부모가 지각한 영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첫째, 유아 단계에서 영재 판별은 부모가 아동으로부터 지각한 영재적 특성을 정보로 사용하되 연령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기에 보여진 특성이 연령에 따라 변화함을 시사해주므로, 유아영재판별은 조기 판별의 효율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영재특성에 기인한 판별 후에는 반드시 교육적 조치에 따른 아동의 발전 여부를 함께 파악하는 판별후 조치가 개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영재적 특성의 확인은 영재교육과 연계되어서 생각해야 한다. 영재교육적 조치가 없다면, 영재적 특성의 확인의 요구는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유아영재판별은 실제적인 영재성(actual giftedness) 판별이 아니라 잠재적 영재성(potential giftedness)의 판별인 만큼, 영재다 아니다의 판별 근거가 아니라 영재로 성장발달할 가능성을 시사케하는 어린 시절에 나타난 잠재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 영재유아의 재능 영역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은 만큼, 부모가 보고한 유아영재 특성은 재능영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의 지각에 따른 영재적 특성은 매우 신뢰로운 정보이지만, 영재판별 과정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정보 뿐만 아니라 교사, 영재전문가, 검사전문가, 및 아동이 함께 판별과정에 참여하여 각 사람이 주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판별해야 판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Rogers(1986)는 유아 영재 특성이 일찍부터 많이 나타난다면, 영재교육 전문가에게 영재판별을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아이에게 맞을 때에는 다른 문제들도 함께 개선된다는 학부모의 말을 인용하면서 4살 정도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제 유아영재판별과 유아영재교육이 시작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앞으로 유아영재를 판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초기에 부모로부터 아동의 영재성을 확인하는 일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해야 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영재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줌으로서 개인의 잠재력 향상 및 교육발전과 적응을 도모하고, 이들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이 다같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혜원(2001). 지적 영재유아 판별의 절차와 과제. *영재교육연구*, 11(1), 99-117.
- 박혜원, 윤여홍(1999). 웨슬러 유아지능검사에서의 영재아동의 수행 특성. *인간발달연구*, 6, 33-47.
- 윤여홍(1998). 영재아 판별에서 한국판 영재아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8(2), 1-30.
- 장영숙(2001). 유아 영재의 판별과 역동적 평가. *영재교육연구*, 11(3), 131-153.
- 조석희, 한순미(1986).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용태(2001). 유아 영재진단 평가체제.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pp. 69-106). 미래유아교육학회.
- Fagan, J. F., & McGrath, S. K. (1981). Infant recognition memory and later intelligence. *Intelligence*, 5(2), 121-130.
- Guiford, A. M., Scheuerle, J., & Schonburn, S.(1981). Aspects of language development in the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25, 159-163.
- Haensly, P., & Lee, K. S. (2000). Gifted potential and emerging abilities in young children: As influenced by diverse backgrounds.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4, 133-150.
- Lewis, M., & Brooks-Gunn, J. (1981). Visual attention at three months as a predictor of cognitive functioning at two years of age. *Intelligence*, 5(2), 131-140.
- Lewis, M., & Louis, B. (1991). Young gifted children. In N. Colangelo and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365-381). Allyn & Bacon.
- Lewis, M., & Michalson, (1985). The gifted infant. In J. Freeman(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pp. 35-57). John wiley & Sons.
- Perleth, C., Schatz, T., & Monks, F. J. (2000). Early identification of high ability. In K. A. Heller, F. J.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2nd ed. pp. 297-316). Elsevier Science Ltd.
- Piirto, J. (1994). *Talented children and adults: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
- Robinson, N. M. (1987). identifying and nurturing gifted, very young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 A. Passow(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pp. 507-524). New York: Pergamon.

- Roedell, W. C. (1990). Nurturing giftedness in young children. *ERIC EC Digest #E487*.
- Rogers, M. T. (1986). *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al traits of gifted and average youngs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 Torrance, E. P., & Caropreso. E. J. (1999). Assessment of preschool giftedness: Intelligence and creativity. http://www.hoagiesgifted.org/young_children.htm.
- White, B. (1985). Competence and giftedness. In J. Freeman(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pp. 59-73). John wiley & Sons.

Abstract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giftedness by parents' perception

Yeu Hong Yoon(KAGE, Ajo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hong@chollian.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giftedness by their parents' perception. Total 3 groups of 148 subjects from age 30 months to 6 years 10 months old young gifted children's parents participa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critical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giftedness by parents' perception, which were 'good memory', 'high curiosity', 'read and understand of math', 'enjoy of learning and high motivation', 'high concentration', 'reading books', 'verbal ability', 'creativity', 'questions', and 'independency', (2) These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giftedness showed more strong and intense as they got older, and (3) Some characteristics revealed more, but the other characteristics revealed less as they got older. These findings suggested the consideration of child's age as the reliable identification process of young gifted children.

key words: preschooler's characteristics, giftedness, parents' perception of giftedness, identification of giftedness.